

<p>13.</p> <p>껍데기는 가라</p> <p>껍데기는 가라.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.</p> <p>껍데기는 가라. 동학년 곰나루의,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.</p> <p>그리하여, 다시 껍데기는 가라. 이 곳에선,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</p> <p>껍데기는 가라.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려운 흙가슴만 남고 그, 모오든 쇠불이는 가라.</p>	<p>14.</p> <p>오렌지</p> <p>신동엽</p> <p>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.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.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.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.</p> <p>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.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.</p> <p>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착잘한 속살을 깔 수 있다.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.</p> <p>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. 대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.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.</p> <p>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. 오렌지도 마찬가지 위험한 상태다. 시간이 뚫뚫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.</p> <p>그러나 다음 순간,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. 누구인지 잘은 몰라도.</p>
---	---

<p>15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두</p> <p>나는 새장을 하나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</p> <p>처음 그것은 발에 너무 컸다 한동안 덜그럭거리는 감옥을 끌고 다녀야 했으니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</p> <p>새장에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 그러나 그들은 언덕을 잊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으며 날지 않는다</p> <p>새장에는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다 그것이 새장을 아픔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</p> <p>나는 오늘 새 구두를 샀다 그것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</p> <p>내 구두는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배,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켠에서 나는 가끔씩 늙고 고집센 내 발을 위로하는 것이다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탕 같은 구두를 벗고</p> <p>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다</p>	<p>16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송찬호</p> <p>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.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.</p> <p>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.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. 벼가 춤출 때,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.</p> <p>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.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.</p> <p>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,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, 이 넉넉한 힘……</p>
---	---

이성부